

몸에 착용하는 물건의 금속광택에 대한 조사

The Survey of Shininess of Metal on the Human body

홍승기, 이승희†

일본 츠크바대학대학원 인간총합과학연구과 감성인지뇌과학전공, 일본 츠크바대학 예술계†

Key words: Shininess, Metal, Human body

1. 서론

신소재개발과 재료가공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소재의 형태, 질감, 색, 광택 등 선택의 폭은 한층 넓어졌다. 그 중에서도 금속의 광택은, 빛에 반사했을 때 그 특유의 시각적효과를 일으킨다. 금속은 “인공적이며, 화려하며, 차갑고, 실용적인” 속성을 지니고있다고 할 수 있으며(이와이, 2008), 금속색 중 금과 은은 일상생활속에서 꼭 필요한 중요색 중 하나로 인식되어지고 있다(오노, 2010). 뿐만 아니라, 은(銀)은 일, 영, 미, 중, 싱가포르 5 개국 남성모두가 기호색채순위중 3 위 내지 4 위로 선택될만큼 선호되는 색이다(이나바, 2011). 이와같이 금속 및 금속색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몸에 착용했을 경우 금속광택이 불러일으키는 감성반응 및 인간의 외관에 끼치는 심미적영향에 대해서는 연구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금속표면처리 기술이 나날이 발달하고있는 오늘날,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장신구, 디지털 정보기기, 의료기기 등 인간의 몸에 착용하는 다양한 물건의 광택의 정도는 섬세한 선택을 요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금속광택의 속성을 파악하여, 사람의 몸에 착용하는 물건을 디자인하는 제품 및 장신구 디자이너 뿐만아니라, 그것들을 착용하게 될 사용자와, 나아가 다양하고 실험적인 인간의 외관상(像)의 디자인을 계획하는 디자이너를 지원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금속광택에 대한 조사

3.1. 금속광택의 세단계

본 조사에 앞서 사전실험을 실시하여 금속광택의 세단계 강,중,약의 이미지를 추출하였다. 우선

피험자에게 몸에 착용하는 물건의 사진 58 장을 보여준 다음, 피험자의 직감으로 금속광택의 정도에 따라 강,중,약 세 그룹으로 나누게 하였다. 이때 ‘강’은 ‘가장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 ‘중’은 ‘강’보다 반짝임이 덜한것, ‘약’은 ‘중’보다 더욱 반짝임이 덜하고 세그룹중 가장 광택이 없는 것임을 피험자에게 서면과 구두로 지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7 명의 피험자가 공통으로 선택한 사진만을 강,중,약의 이미지로 채택하였다.

3.2. 조사방법 및 질문항목

본 조사에서는 착용자가 (1)일상생활에서 몸에 물건을 착용할때 신경쓰는 물리적으로인 심리적으로인, (2)안전성을 우선했을때 몸에 착용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형태, (3)몸에 착용하는 물건의 종류, (4)그것들의 금속광택의 정도, (5)그것들의 착용빈도, 다섯항목을 설문조사형식으로 알아보았다. (4),(5)에서는 사전실험에서 추출한 금속광택의 강,중,약의 사진을 참고하게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츠크바시에 거주하는 20~33 세의 남녀 23 명(여 12 명,남 11 명)으로, 조사기간은 2012 년 2 월부터 3 월까지이다.

4. 조사결과 및 분석

4.1. 조사결과

몸에 물건을 착용할때 신경쓰이는 요인중 가장 많이 선택된 물리적요인은 남녀모두 형태(디자인)이었으며, 심리적 요인은 “나에게 어울리는가”의 항목이었다. 그외에 “전체적인 코디에서 조화로운가”, “자리에 어울리는가”의 항목이 선택되었다. 또한, 안전성을 우선하여 몸에 착용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형태로 선택되어진 것은, 사각형에서 파생한 각이 둥근 형태였다.

피험자전원이 공통으로 몸에 착용하는 물건은 휴대폰이었으며, 안경과 손목시계 역시 대부분의 피험자가 공통으로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 물건은 장신구였다. 특히 목걸이는 전체 여성 12 명중 11 명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만이 착용하는 물건은 지갑, 넥타이핀, 모자, 브로치, 커프스 버튼, USB, 열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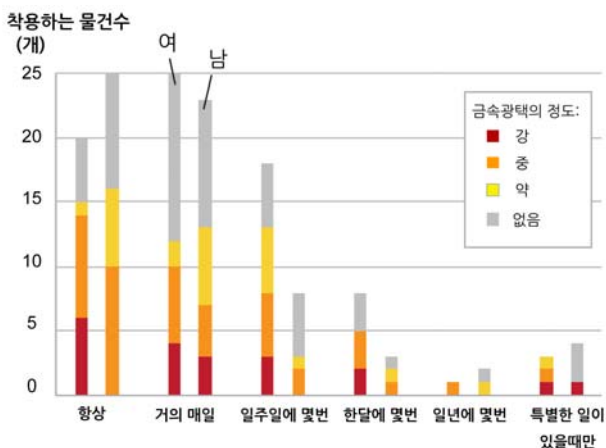
몸에 착용하는 물건의 금속광택의 정도에 대해서는, 여성이 금속광택 ‘강’ 의 물건을 16 개, ‘중’ 의 물건을 24 개 착용하고 있어, 이 개수가 남성보다 많았다 (표 1). 이에 비해, 남성은 ‘강’ 의 물건을 4 개만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성별에 따른 금속광택을 띄는 물건의 개수의 차이 (개)

	강	중	약	없음	총
여	16	24	9	26	75
남	4	17	15	29	65

여성은 금속광택 ‘강’ 의 물건 16 개 중 6 개는 항상 몸에 착용하고 있으나, 남성은 항상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또한, 여성은 거의 매일 착용하거나 일주일에 몇번, 한달에 몇번 착용하는 빈도수가 남성보다 높았다. 남성이 거의 매일 착용하는 금속광택 ‘강’ 의 물건은 2 개가 휴대폰, 1 개가 손목시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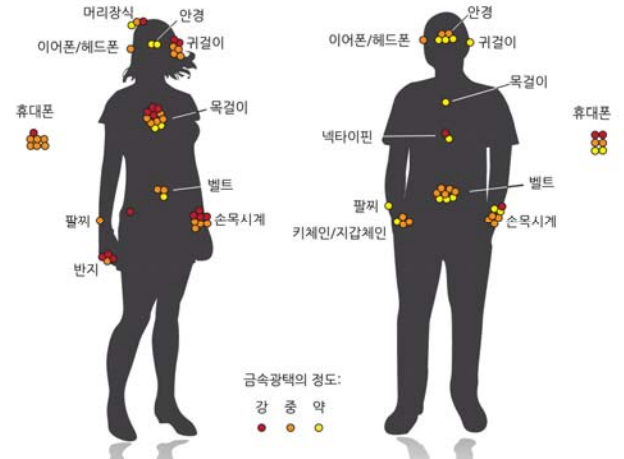
표 2. 금속광택의 정도와 착용빈도



4.2. 분석

조사결과를 토대로, 각 물건의 위치를 인체상에 나타내어 금속광택의 분포를 나타내었다(그림 1). 남녀모두 몸에 착용하는 물건은 머리와 몸통에

집중하고 있는 양상을 띄고 있으며, 벨트를 경계로 허리아래로는 금속광택이 출현하지 않고 있다. 여성은 가슴부분에 다양한 금속광택을 보이고 있으며, 남성은



가슴에 ‘강’ 의 물건이 넥타이핀 하나였다.

그림 1. 인체상의 금속광택분포

5. 논의

일상생활에서 몸에 착용하는 물건중, 금속광택을 띄는 물건이 상당수 포함되어있으며, 가장 강한 광택에 대한 남녀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금속광택 ‘강’ 의 16 개중 10 개가 장신구, 4 개가 손목시계를 고려했을때, 강한 금속광택에 기대하는 것은 장식성과 심미성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남성은 대체적으로 ‘중’ 과 ‘약’ 을 기본으로한 외관상을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건의 목록을 연구자가 제시한 다음 그안에서 피험자가 선택하게 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반대로 금속광택만을 제시하여 피험자의 자유로운 발상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이끌어 내는 방식도 시도해 볼 계획이다 또한, 본 실험에서는 금속광택의 이미지를 종이에 인쇄하여 사용하였으나, 빛에 반사하는 금속광택 특유의 속성을 감안할 때, 실물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참고문헌

Seiji Iwai, Hiroyuki Aoki (2008). Material knowledge of Industrial design, *Nikkan Kogyo Shinbun Ltd. chapter6: texture and material*

Ayaji Ono et al (2010).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color vocabulary for the modern Japanese, *Journal of the Color Science Association of Japan*, 34(1), 2–13

Takashi Inaba et al (2011). A Comparative study of color and pattern preference in five countries. *Journal of the Color Science Association of Japan*, 35, 82–83